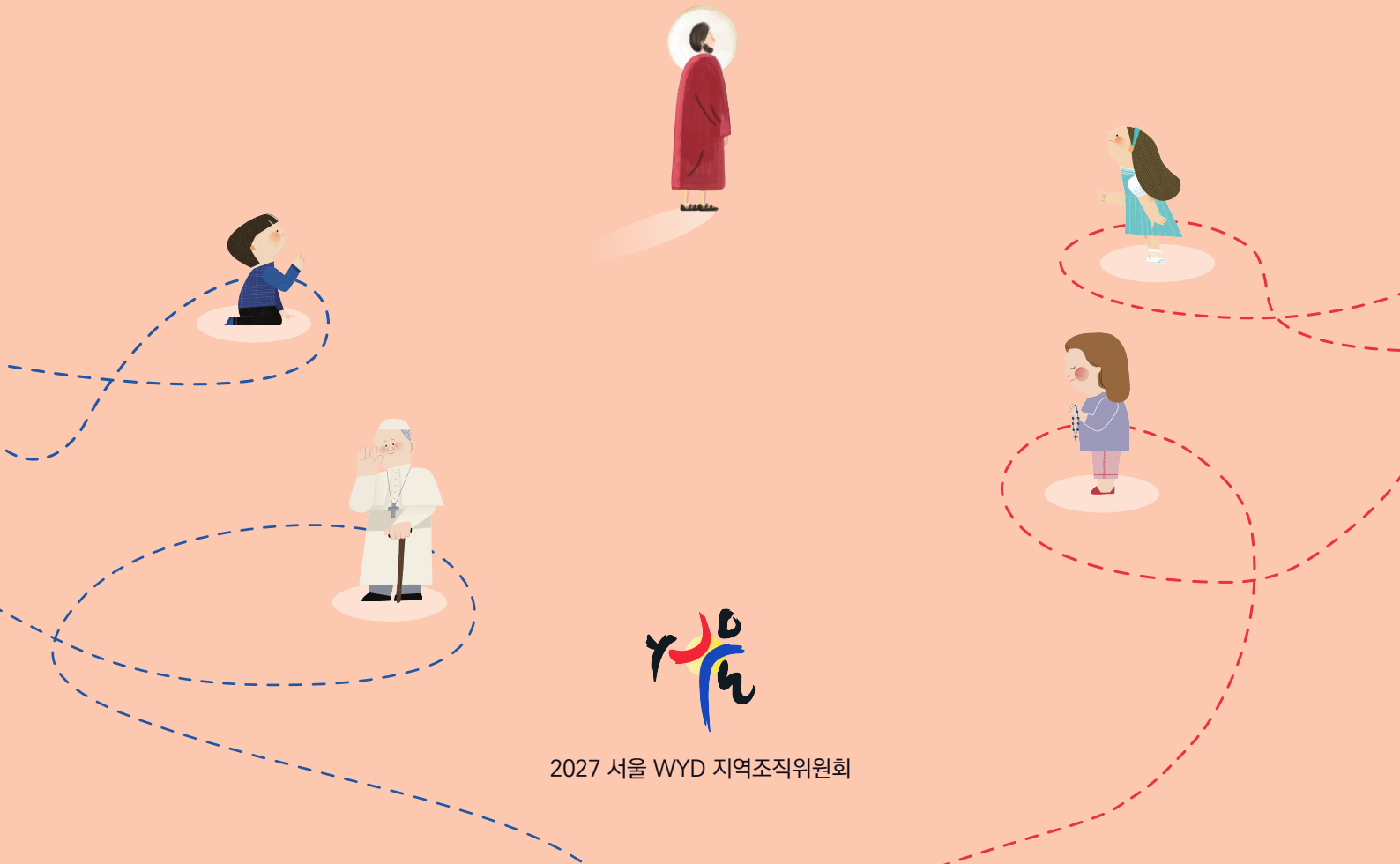


워크북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CHRISTUS
VIVIT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

1과

여행을 떠나며 - 나 너 그리고 우리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문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참다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86항, 프란치스코 교황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래 빙고 판의 질문에 답을 적으며 나에 대해 알아보고, 공동체와 함께 칸을 채우며 서로에 대해 알아보시다.

- ① 빙고 판의 질문을 보고, 괄호 안에 나의 답을 적습니다.
- ②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나와 같은 답을 쓴 사람을 만나면, 해당 칸의 밑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칸을 채웁니다.
- ③ 먼저 2줄을 채운 사람이 “빙고!”를 외칩니다.

.. B I N G O ..

<p>뜨아 vs 아아</p> <p>[]</p> <p>_____</p>	<p>좋아하는 계절</p> <p>[]</p> <p>_____</p>	<p>활동하는 단체</p> <p>[]</p> <p>_____</p>	<p>나만의 기도 시간</p> <p>[시]</p> <p>_____</p>
<p>좋아하는 음식</p> <p>[]</p> <p>_____</p>	<p>성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p> <p>[]</p> <p>_____</p>	<p>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았나요?</p> <p>[O , X]</p> <p>_____</p>	<p>최애 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p> <p>[]</p> <p>_____</p>
<p>평일 아침 기상 시간은?</p> <p>[5, 6, 7, 8, 9~]</p> <p>_____</p>	<p>나의 MBTI</p> <p>[]</p> <p>_____</p>	<p>산 vs 바다</p> <p>[]</p> <p>_____</p>	<p>견진성사를 받았나요?</p> <p>[O , X]</p> <p>_____</p>
<p>고해성사 본 지 얼마나 되었나요?</p> <p>[1달, 3달, 6달~]</p> <p>_____</p>	<p>쉬는 날 나느?</p> <p>[집 , 밖]</p> <p>_____</p>	<p>나의 취미</p> <p>[]</p> <p>_____</p>	<p>짜장면 vs 짬뽕</p> <p>[]</p> <p>_____</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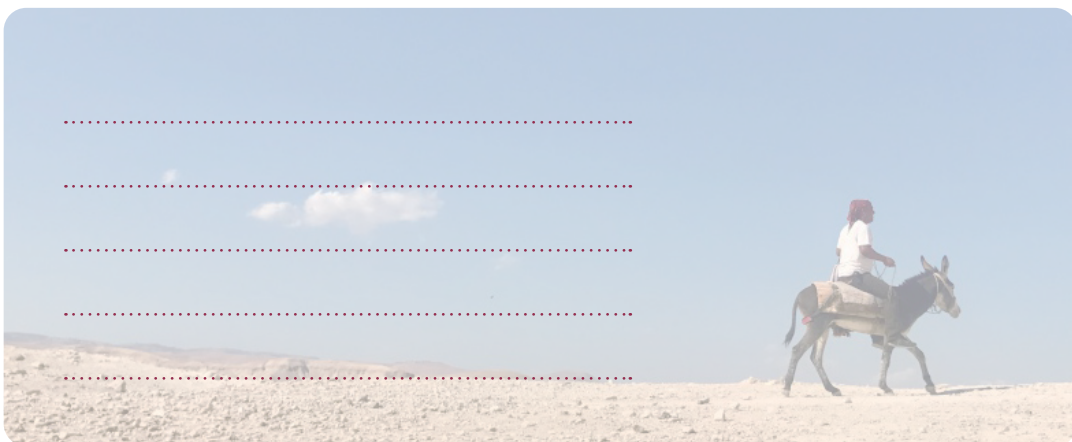
읽어 보아요

아래의 글을 정성껏 읽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인류가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하여 점점 더 깊이 투신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자의식이라는 지평 안에서 펼쳐져 온 여정으로서, 인간이 실재와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욱 자신의 독특성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절박해지는 사물들과 그 존재의 의미를 묻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식의 대상이 모두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델피Delphi 신전의 문설주에 새겨져 있는 “너 자신을 알라!”Gnoti seauton!는 권고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추구하는 인간 존재자, 곧 ‘자기 자신을 아는’ 존재자들에게는 최소한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기본 진리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대 역사를 잠시 훑어보더라도, 세계의 여러 구석에서 상이한 문화 전통 속에서 인간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근본적 질문들, 곧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대체 악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승살이가 끝난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등의 질문들이 어떻게 동시에 솟아날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책들, 「베다」와 「아베스타」, 공자孔子와 노자老子の 저술들, 그리고 티르탄카라와 부처의 설교들 속에서 발견하고, 또 호메로스의 시와 에우리피데스와 소포클레스의 비극에서는 물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작품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정신을 언제나 압박해 온 의미 탐구라는 공통의 원천으로부터 솟아나는 질문들입니다. 사실, 이 문제들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사람들의 인생 향로를 결정짓게 됩니다.

「신앙과 이성」 1항,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생각해 보아요

- □ ‘나’는 누구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칭찬하는 점은 무엇인지, 또 나만
아는 나의 장점과 재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적어 봅시다.

-
-
-
-
-
-
-

- □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
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또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참
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살아가는
‘나’가 되기 위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
-
-
-
-
-
-
-
-
-
-



○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 16쪽을 함께 바칩니다.

○ 나누고 듣기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 함께 만들어 나가기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25년 2월 1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인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우리가 삶에서 수차례 경험해 본 어두운 밤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에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현존하시어, 우리 존재의 의미에 관한 다음과 같은 궁극적인 질문들에 응답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왜 사랑하는가?’, ‘왜 고통받는가?’,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느님께서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주시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오심으로써 어둠은 밝혀지고 고통의 그늘에 앉아 있는 수많은 이들은 길을 찾게 됩니다. 루카 1,79 참조

「놀라운 표징」 4항, 프란치스코 교황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WYD 로고

성령 위에 하나된 서울과 전세계의 청년을,
한국의 전통적인 서예기법으로
'서울'을 표기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 안에서
'W', 'Y', 'D'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WYD가 교차되는 모습을 통해
동서양의 조화로운 일치를 지향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